

宗教性에 로의 道程

—The Pearl 이 象徴하는 것—

金 利 哲*

- | | |
|-------------------|----------|
| 1. 序 論 | 3. 作品 分析 |
| 2. The Pearl 의 位置 | 4. 結 論 |

1. 序 論

이 小論의 目的은 John Steinbeck 이 그의 作品生活의 歷程 속에서 宗教的 境地에 到達할 때까지의 苦惱와 彷徨을, 하나의 里程標가 될 수 있는 그의 作品 The Pearl(1945)을 中心으로 解剖해 보려는 데 있다.

그는 그의 作品 East of Eden에서 다음과 같이 人間을 說明하고 있다.

“Human are caught — in their lives, in their thoughts, in their hungers and ambitions, in their avarice and cruelty, and in their kindness and generosity too — in a net of good and evil....

A man, after he has brushed off the dust and chips of his life, will have left only the hard, clean questions: Was it good or was it evil? Have I done well or ill?¹⁾

즉 그는 人生이란 善과 惡의 거미줄에 걸려 있는 存在라고 規定짓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生活, 우리의 思想, 우리의 欲望, 또한 우리의 野望, 우리의 貪慾과 殘忍性, 우리의 親切과 寬容性할 것 없이 모두가 善과 惡의 그물에 얽혀있는 存在, 이것이 人間이라고 說破하고 있다. 또한 그는 人間이 죽음에 直面하였을 때 남는 단 한 가지 分명한 疑問은 自己의 一生이 善한 것이었나 惡한 것이었나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人間이 이런 存在이기 때문에 이 善과 惡의 相剋 속에서 Steinbeck은 人間の 歷史를 읽으려고 했다. 그가 아벨이나 노아 같은 神이 選擇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카인의 後孫으로서의 人間을 把握하려 한 것은 우리들 個人

* 文理科大學(서울) 英語英文學科 教授

1) John Steinbeck; East of Eden (The Viking Press, New York) p. 415.

에게서 카인과 같은 罪의 要素를 發見하는 데 그 理由가 있었다.

그러므로 카인이 그 나름대로 神의 保護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善과 惡의 그물에 걸려 헤어날 줄 모르는 우리에게도 救援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 救援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Steinbeck의 宗教的 姿勢는 傳統的 聖書 解釋과 見解를 달리한다. 즉 人間의 救援은 神의 慈悲나 選擇에 의해서가 아니라 人間의 自由意志와 이 自由意志를 行使한 人間의 選擇權으로 해서 救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그래서 Steinbeck은 人間 속에서 그것도 個人 속에서 小宇宙를 즉 神性を 發見하려 했다. 다시 말해 그는 人間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否定할 수 없는 神性的 存在를 認定하고 人間이 비록 神이 要求하는대로의 完全한 길을 걷고 있지는 못하지만, 人間은 神의 要素를 품고 있기 때문에 人間을 各各 倫理의 한 單位로 位置지음으로써 人間에 대한 救援의 可能性을 發見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Steinbeck은 人間自體 속에다 救援의 可能性을 認定했기 때문에,

“May be you’ll come to know that every man in every generation is refined. Doesn’t a craftsman, even in his old age, love his hunger to make a perfect cup—thin, strong, translucent?... All impurities burned out and ready for a glorious flux, and for that—more fire. And then either the slag heap or, perhaps what no one in the world ever quite gives up, perfection.”²⁾

즉 各世代에 있어서 各사람이 純化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것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不純한 모든 것이 남김없이 타 버리고 榮光의 빛나는 흐름으로 점차 向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 人間에게는 더욱 더한 試練이 가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 試練을, 人間은 자기가 갖고 있는 選擇權에 따라서 倫理의 한 單位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처하여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되고, 또 人間의 價値도 거기에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란 공기가 占할 空間을 쓸모없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You see, there’s a responsibility in being a person. It’s more than just taking up space where air would be.”³⁾

이렇게 倫理의 한 單位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自覺할 수 있는 것은 오직 人間에게만 許容된 것이며 이것이 또한 人間을 人間답게 하는 것이라고 Steinbeck은 믿었다. 그래서 그는,

2) Ibid., II, p. 415.

3) Ibid., II, p. 455.

“And it occurs to me that evil must constantly respawn, while good, while virtue, is immortal. Vice has always a new fresh young face, while virtue is venerable as nothing else in the world is.”⁴⁾

라고 말함으로써 惡이 자꾸만 새끼를 쳐서 아무리 이 世上에서 繁榮을 누리고, 또 惡德이 말쑥한 얼굴로 紛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고, 이와 反面에 人間 속에 깃든 善과 德性은 永遠不滅의 것이라고 그는 主張한다.

그러니까 Steinbeck 은 人間の 自由意志에 價値를 주고 또한 人間에게 神性을 賦與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人間 속에 간직된 善이요, 美이며, 德性이고, 誠實性이며, 특히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런 重要的 몇 가지 要素들이 人間을 어느 정도 神과 同列에 놓이게 해주고 또 永遠한 生命을 주는 것이라고 說破했다.

따라서 人間の 選擇權 行使는 人間을 神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아니며, 또 神이 指示하는 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神이 내리는 命令 이상으로 自由意志로 向하는 방향을 規定해 준다고 그는 主張했다.

이처럼 人間이 자기가 지닌 神性, 즉 自由意志와 善과 美와 사랑을 發揚할 때 人間은 榮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And I guess a man’s importance in the world can be measured by quality and number of his glories. It is lonely thing but it relates us to the world. It is the mother of all creativeness, and it sets each man separate from all other men.”⁵⁾

라고 말함으로써 人間の 重要性을 榮光의 質과 數로 測定하려 하기도 했다. 이런 榮光을 찾는 삶의 길이 괴롭고 외로운 것이라고 認定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이 世上과 關係를 갖게 해주며, 그러면서도 各者를 다르게 해주고 또 모든 創造의 母體가 되는 것이라고 그는 確信했었다.

그래서 Steinbeck 은, 人間은 이러한 榮光으로 向하는 努力과 生活에서 救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人間이 混濁과 彷徨으로부터 눈을 뜨고 善한 것의 榮光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데 救援이 있고, 또 자기를 그렇게 引導하는 것이 倫理의 한 單位로서의 個人이 걸머진 先天的 義務이기도 하다고 主張했다. 또한 우리가 榮光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個人마다 끊임없이 自己自身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인 同時에 그것 없이는 우리들 生命의 價値를 無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Steinbeck 이 계속 찬양하는 個人의 價値라는 것은 위와같은 宗教性을 지니고 있다.

4) Ibid., II, p. 415.

5) Ibid., II, p. 131.

그것은 언뜻 보기에 神과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窮極的으로는 人間을 神앞에 세우고 神과 人間과의 對話 속에서 人間の 姿勢를 스스로 묻게 하자는 것이다.

“And this I believe: that the free, exploring mind of the individual huma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⁶⁾

Steinbeck은 이처럼 個人이 무엇인가를 찾아해매는 마음이 이 世上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했고, 이 彷徨 속에서 모든 사람이 救援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滅亡을 당하는 수가 없지 않지만,

“Surely most men are destroyed, but there are others who like pillars of fire guide frightened men through the darkness.”⁷⁾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겁에 질려 갈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引導해낼 불기둥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個人이 滅亡의 길을 가느냐, 혹은 불기둥이 되느냐는 神이 命命하거나 指示하는 것이 아니라, 各個人이 自己 속에 품고 있는 倫理의 한 單位의 價値를 어느 程度까지 貴重하게 생각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는 믿었고, 따라서 Steinbeck은 最後에 가서는 個人의 靈魂이 그리고 人間 속에 깃든 善이 勝利할 것이라고 確信했다.

2. The Pearl의 位置

序論에서 說明한 Steinbeck의 宗教觀乃至는 人間觀이 正當한 것이냐 아니냐는 本小論의 主題가 아니므로 省略한다 치더라도 그가 그런 宗教性을 지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彷徨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앞서 指摘한 대로 The Pearl은 이 作家의 精神的 彷徨의 한 里程標가 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를 알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作品의 位置를 우선 규명할 필요가 있다.

Steinbeck이 1929년에 낸 處女作 Cup of Gold를 제외한 30年代의 모든 作品에 있어서의 一貫된 主張은 한마디로 말해, 個人의 尊嚴性을 無視하려 드는 外部의 壓力에 대한 人間の 抵抗이었다. 이 當時 그는 強한 社會意識을 지니고, 주로 地主나 資本家に 對處하는 農民鬭爭의 形式으로 社會構造를 解剖했고, 특히 In Dubious Battle (1936)이나, The Grapes of Wrath (1939)에 있어서 이 外部의 不當한 壓力을 除去하기 위하여 弱者인 勞動者 農民이 集團化하여 鬭爭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후 第二次大戰을 거치는 동안 美國의 存亡

6) Ibid., II. p.132

7) Ibid., II. pp.308~309

을 決하는 熾烈한 戰爭 탓도 있었고 또 나치즘과 帝國主義에 대한 民主主義의 擁護라는 時代的 要請에 힘입은 바도 없지 않았지만, 여하튼 이 集團의 鬭爭에 대한 생각을 그는 버리고 말았다.

이 轉換의 原因은 물론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社會意識이 짙은 30年代의 作品에서도 약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며, 또 大戰中 從軍作家로 歐羅巴를 轉轉하는 동안의 經驗과 1943年 再婚後 故鄉인 農村 Salinas 를 버리고 都市 NewYork 으로 移住한 것 등이 곁들여져, 30年代에 지녔던 社會意識에 많은 動搖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外面的 動機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社會問題의 解決은 우선 個人問題의 解決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集團 對 集團의 鬭爭으로는 풀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이 轉換의 主原因인 것이다. 즉 勞働者나 農民의 集團을 아무리 地主, 資本家의 集團에 對決시켜 鬭爭을 展開해 보았자 결국 人間問題의 解決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決論에 到達한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그의 作品의 焦點을 個人, 즉 人間의 本質的인 것으로 돌리려고 했다⁸⁾. 그는 1942年 The Moon Is Down 을 내어 形式上으로는 被占領 國民의 集團과 占領軍이란 集團을 對決시켰으나, 지금까지의 勞働者 農民의 組織化, 煽動宣傳, 스트라이크 등의 外部의 方法을 使用하지 않고 좀 더 內部로 파고들어 被占領 國民集團의 團結된 精神, 自由意志에다 中點을 두었다. 즉 두 集團의 社會的 또는 政治的 問題를 다룬 것이 아니라, 兩者의 集約된 精神 對 精神의 싸움에 焦點을 두었다⁹⁾. 그러나 個人의 自由意志를 強調하고 또 自由意志가 人間價値의 根源이 된다고 主張한 데까지는 East of Eden 의 境地에 다다른 路程의 작은 里程標가 되었지만, 이 作品을 좀 더 살펴볼 때 外部의 壓力에 대한 抵抗이나 나치즘과 民主主義를 政治的으로 對決시켜 거기서 생기는 激烈한 社會問題를 動的인 世界에서 把握하려 든 것으로 보아 The Grapes of Wrath 의 領域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호한 姿勢였다. 다시 말해, 비록 集團 對 集團의 政治的 社會的 鬭爭에서 一步前進하여 人間의 精神的 問題에 파고들려 했지만, 앞서 말한 모든 問題의 解決에 우선하여 人間問題 特히 個人 속에 깊이 묻혀 있는 人間의 本質的인 것을 糾明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¹⁰⁾.

Steinbeck 도 이 轉換에 있어서의 未洽함을 깨달았던지 이번에는 集團을 縮少해서 한 家庭을 設定하고, 이 家庭과 外部 즉 社會의 壓力과를 對決시켜 이 最少單位의 社會에서 새롭게 人間의 價値를 물으려 한 것이 The Pearl 이다¹¹⁾.

8)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p. 262

9) Ibid., II. p. 189

10) Ibid. II. p. 190

11) Notes on Steinbeck's The pearl (Methuen Education Ltd. London) p. 23

3. 作品 分析

The Pearl 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달리 明確한 倫理를 지니고 East of Eden 에 가까와진다. 그러나 Steinbeck 이 이 最少規模의 社會(家庭)와 外部를 對立시켜 놓고 摸索한 人間問題가 과연 成功을 거두었느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우리는 이 作品을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作家는 이 作品의 첫머리에서,

“If this story is a parable, perhaps everyone takes his own meaning from it and reads his own life into it.”¹²⁾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의 解釋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사람에게 따라서는 이 作品이 虐待받는 被征服民族인 인디언들에게 無言의 同情을 나타내며, 그들의 憤怒를 代辯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사람에게 따라서는 가없는 바닷가에서 生存을 이어가는 Kino 夫婦처럼, 人間까지를 包含한 地上의 모든 것의 努力이 언젠가는 無로 돌아간다. 따라서 모든 人間은 ‘空手來 空手去’를 마음에 새기고 살 것을 論하였다고도 할 것이고, 좀더 社會意識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傳說을 作品化시켜 내놓음으로써 白人 征服者들은 被征服者들이 貧困과 隸屬을 甘受케 하려는 企圖가 있었다고 解釋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Steinbeck 은 讀者들 마음대로 解釋할 수 있다고 이 作品의 서두에서 말했음에도 不拘하고 그의 前作 Sea of Cortez 에서 자기나름대로 이 作品의 대체적 즐거리와 性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An Indian boy by accident found a pearl of great size, an unbelievable pearl. He knew its value was so great that he need never work again..... In his great pearl lay salvation, for he could in advance purchase masses sufficient to pop him out of Purgatory like a squeezed watermelon seed..... He took his pearl to a broker and was offered so little that he grew angry for he knew he was cheated. Then he carried his pearl to another broker and was offered the same amount. After a few more visits he came to know that the brokers were only the many hands of one head and that he could not sell his pearl for more. He took it to the beach and hid it under a stone, and that night he was clubbed into unconsciousness and his clothing was searched. The next night he slept at the house of a friend and his friend and he were injured and bound and the whole house searched. Then he went

12) John Steinbeck; The Pearl, (Bantam Books. New York) p.1 (이후 이 冊에서의 引用은 引用文 뒤에 page 로 表示하기로 한다)

inland to lose his pursuers and he was waylaid and tortured. But he was very angry now and he knew what he must do. Hurt as he was he crept back to La Paz in the night and he skulked like a hunted fox to the beach and took out his pearl from under the stone. Then he cursed it and threw it as far as he could into the channel. He was a free man again with his soul in danger and his food and shelter insecure. And he laughed a great deal about it.”¹³⁾

그러나 그가 후일 이 작품을 쓸 때에는 위의 기본적 줄거리는 그대로 사용했으나 몇가지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즉,

The pearl is to provide not “the ability to be drunk as long as he wished,” but an education for Coyotito: “My son will read and open books, and my son will write and will know writing. And my son will make numbers, and these things will make us free because he will know—he will know and through him we will know.”¹⁴⁾

로 바뀐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傳說에다, “He was free man again.....”과 “.....and these things will make us free.....”등을 넣음으로써 人間의 自由를 問題삼으려 했고 또 East of Eden으로 발돋움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의 말대로 여러가지 解釋이 있을 수 있으나 本論文에서는 처음부터 宗教的 次元에 있어서의 人間問題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나타난 自由의 概念 즉 Steinbeck이 이 작품에서 人間의 自由를 어떻게 취급하려 했는가에 焦點을 맞추려 한다.

우선 Kino는 自由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렇다고 그에게 自由에 대한 막연한 憧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著者는 이런 Kino의 막연한 自由에의 소망을 Song of Family로 象徵시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Kino heard the little splash of morning waves on the beach. It was very good—Kino closed his eyes again to listen to his music. Perhaps he alone did this and perhaps all of his people did it. His people had once been great makers of songs so that everything they saw or thought or did or heard became a song. That was very long ago. The songs remained; Kino knew them, but no new songs were added. That does not mean that there were no personal songs. In Kino’s head there was a song now, clear and soft, and if he had been able to speak it, he would have called it the Song of the Family.”(p. 2)

우리는 위의 글에서 song이란 낱말을 freedom이란 낱말로 바꾸기만 한다면 Kino가 가지고 있는 自由에의 憧憬을 읽을 수 있다.

13) John Steinbeck; Sea of Cortez. (Bantam Books, New York) pp. 102~103

14) Lisca, op. cit., p. 219

둘째로 作家는 The Pearl 을 自由의 상징으로 보아 Kino 가 그 眞珠 즉 自由에 대한 갈망을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And as he filled his basket the song was in Kino, and the beat of the song was his pounding heart as it ate the oxygen from his held breath, and the melody of the song was the gray green water and the little scuttling animals and the clouds of fish that flitted by and were gone. But in the song there was a secret little inner song, hardly perceptible, but always there, sweet and secret and clinging, almost hiding in the counter-melody and this was the Song of the Pearl That Might Be, for every shell thrown in the basket might contain a pearl.”(p. 23)

드디어 Kino 는 眞珠를 發見한다.

“Kino deftly slipped his knife into the edge of the shell..... Kino lifted the flesh, and there it lay, great pearl, perfect as the moon. It captured the light and refined it and gave it back in silver incandescence. It was as large as a sea-gull's egg. It was the greatest pearl in the world.”(p. 23)

그가 이 眞珠(自由)를 얻었을 때 그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그는

“In the surface of the great pearl he could see dream forms.”(pp. 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眞珠의 거울에 비치는 꿈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Kino 가 갑작스럽게 얻은 自由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그 自由를 어떻게 行使하려 했는가 된다.

그의 소원의 첫째는 우선 聖堂의 높은 祭壇 앞에서 그의 아내 Juana 와 正式으로 結婚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둘째로, 그는 “We will have new clothes.”(p. 32)였으며,

세째로는 새로운 ‘작살’을 사는 것이었고,

네째는 총을 사는 것이었다.

“It was the rifle that broke down the barriers. This was an impossibility, and if he could think of having a rifle whole horizens were burst and he could rush on.”(p. 32)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총이라는 武器만 가지면 과거에 도저히 不可能하다고 생각했던 征服者와 被征服者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기서 한 발작 더 나아가 앞서도 引用한 아들의 教育을 생각하게 된다. 아들이 글을 읽고, 쓰고, 셈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自由롭게 하리라고 다섯 번째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眞珠(自由)를 가진 Kino의 自由人의 像을 著者는 동리 사람들의 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Now the neighbors knew they had witnessed a great marvel. They knew that time would now date from Kino’s pearl, and that they would discuss this moment for many years to come. If these things came to pass, they would recount how Kino looked and what he said and how his eyes shone, and they would say, “He was a man transfigured. Some power was given to him, and there it started. You see what a great man he has become, starting from that moment. And I myself saw it.”(p. 32)

그러나 이 이웃사람들의 눈에 強大한 힘을 가진 英雄으로 비친 Kino 자신은 그 眞珠를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물론 여러가지 소원을 되새기고 또한 그것을 發說하여 이웃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실제의 그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純朴性과 自由喪失에 대한 不安感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우선 그는 기대되는 조개를 따가지고 Juana가 타고 있는 배위에 올라와 그 조개를 꺼려고 할 때의 Kino의 마음은,

“It is not good to want a thing too much. It sometimes drives the luck away. You must want it just enough, and you must be very tactful with God or gods.”(p. 24)

이처럼 純朴했고, 또한

“And he had never said so many words together in his life. And suddenly he was afraid of his talking. His hand closed down over the pearl and cut the light away from it. Kino was afraid as a man is afraid who says, I will, “without knowing.”(p. 34—35)

이라는 不安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不安과 恐布의 原因은 무엇일까? 그것은 Kino가 갖는 자유가 어떤 깊은 哲學이나 原理를 바탕으로 또한 組織的이고도 끈질긴 努力과 鬪爭에 의해서 얻어진 자유가 아니고 우연히 찾아온 것이라기보다 우연히 주은 자유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리 사람들도,

“The neighbors looked at the pearl in Kino’s hand and they wondered how such luck could come to any man.”(p. 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Kino의 은행을 부러워 했고, 著者도 이 자유의 發見이 얼마나 우연적이었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But the pearls were accidents, and the finding of one was luck, a little pad on the back

by God or the gods or both.”(p. 22)

따라서 아무런 代價없이 얻은 自由는 守護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Juana 는 Coyotito가 전갈에 물렸을 때 의사의 치료를 못받게 되자 海草로 만든 私製 고약을 발라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She gathered some brown seaweed and made a flat damp poultice of it, and this she applied to the baby’s swollen shoulder, which was as good a remedy as any and probably better than the doctor could have done. But the remedy lacked his authority because it was simple and didn’t cost anything.”(p. 20)

그러므로 被征服者가 우연히 自由를 주어가지고 征服者의 聖所에 들어가려 할 때 그리 쉽게 門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既成體制는 이것을 하나의 侵入行爲요 또한 그들에 대한 挑戰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Kino의 兄 Juan Thomas는 Kino에게 다음과 같이 忠告한다.

“After Kino has insulted the agents who told him that the pearl was of no great value, his brother, Juan Thomas, says to him, ‘You have defied not the pearl buyers, but the whole structure, the whole way of life, and I am afraid for you.’”¹⁵⁾

이것은 Thomas의 생각이며 恐怖라기보다는 征服者들 즉 白人이 支配하는 既成體制의 憂慮요 恐怖인 것이다. 따라서 그 既成體制는 眞珠商人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社會構造와 生活樣式에 挑戰한 이 Kino라는 새로운 自由人을 容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새로운 自由와 自由人을 抑壓하고 파괴하려 한다.

“A plan is a real thing, and things projected are experienced. A plan once made and visualized becomes a reality along with other realities—never to be destroyed but easily to be attacked. Thus Kino’s future was real, but having set it up, other forces were set up to destroy it, and this he knew, so that he had to prepare to meet the attack.”(p. 37)

이처럼 Kino를 破壞하려드는 그 “탄 세력”은 무엇일까? 著者는 이 세력을 막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Kino’s assailants come at night and are never actually seen except as vague shadows. After the first attack, Kino answers his wife’s cries with, I am all right. The thing has gone. After their hut has been ransacked and burned down, Kino asks Juana, ‘Who?’ and she replies, ‘I don’t know. The dark ones.’”¹⁶⁾

15) Ibid., II, p. 221

16) Ibid., II, p. 221

그러나 이것은 襲擊者들이 주는 恐怖感을 強調하기 위한 著者の 한 技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 누가 Kino 를 죽이려 하고 있는가 즉 그 “만 힘”이 누구를 뜻하느냐는 이 作品上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Kino 가 社會的으로 어떤 位置에 있는 사람인가의 背景부터 찾아본다면,

“Present-day Mexico contains a population of about thirty-five million inhabitants, of whom about ten percent are of native Acztec-Indian origin (and of these almost one million speak no Spanish but only their native language). The Spanish conquest of Mexico generated a struggle between the Europeans and local tribes which lasted more than three centuries and revolved mainly around the right to own land. By 1820 there was scarcely any good land left that was not in private hands, yet there were only about 10,000 landowners; Those of Indian origin who had survived the conquests were living in isolated communities, in ignorance and poverty, plagued by bad diet and disease.”¹⁷⁾

에서 보는 바와 같이 Kino 는 수백년 동안의 착취와 抑壓아래서 榮養不足과 疾病으로 呻呻하며 살아가는 土人의 한 사람인 것이다. 또한 著者도 이 征服者 스페인인들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is was the bed that raised the King of Spain to be a great power in Europe in past years, had helped to pay for his wars, and had decorated the churches for his soul’s sake.” (p. 21)

여기서 問題를 現在로 돌려 Kino 의 現實的 位置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가 전갈에 쏘인 아들 Coyotito 를 안고 스페인인 의사에게 갔을 때에 그가 느낀 階級의 差異는,

“Kino hesitated a moment. This doctor was not of his people. This doctor was of a race which for nearly four hundred years had beaten and starved and robbed and despised Kino’s race, and frightened it too, so that the indigence came humbly to the door. And as always when he came near to one of this race, Kino felt weak and afraid and angry at the same time.” (p. 12)

이런 位置에 있는 Kino 가 眞珠(自由)를 얻어 그 스페인 양반들의 울타리를 侵犯하려 했을 때 그들의 박해는 더 심해졌으며 Kino 를 업신여기려는 手法은 多樣하다. 처음 그들은 Kino 를 유혹하여 그 眞珠를 뺏으려 든다.

神父는 자기 聖堂의 修理를 생각하여 Kino 를 꼬이려했고, 商人은 그것을 속여 사려고 했으며 Coyotito 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는 만 약을 주어 Kino 를 속이려했다. 이 유혹이나 속

17) Notes on Steinbeck’s The Pearl, op. cit., p. 3

임수에 Kino가 넘어가지 않자 그들은 드디어 Kino를 죽이려고 몇차례 습격을 가해 그에게 상처를 주지만 이때까지만해도 Kino의 自由守護의 信念은 제법 강했다.

그래서 그의 兄 Juan Thomas가 그에게 그 眞珠를 포기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호히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This pearl has become my soul,” said Kino. “If I give it up I shall lose my soul.”(p. 87)

그러나 이런 決意는 生命을 잃을뻔한 싸움 直後의 傲氣에서 나온 말이었지 Kino나 이웃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벌써부터 自由(眞珠)를 지키려는 그들의 決心에 일말의 不安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앞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Kino가 얻은 自由는 어떤 哲學과 原理를 바탕으로 오랜 鬪爭 끝에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주는 自由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不安과 懷疑의 몇가지 例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로 注 16)에서 引用한대로 自由行使에 대한 不安을 느꼈으며, 둘째로 그는 人間이 자기의 努力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모든 神들은 人間에게 복수를 하려든다(p. 38)고 생각했다. 그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였다. Kino가 얻은 自由를 協力하여 守護할 생각은 못하고 그가 습격을 당하자 不安해 하기만 하고 있다.

“Kino’s neighbors whispered together. They had been afraid of something like this. The pearl was large, but it had a strange color. They had been suspicious from the first.”(p. 65)

商人들이 값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이 自由는 올바른 색깔의 自由가 아니라고 속인 줄도 모르는 이웃 사람들은 정말로 그 眞珠의 색깔이 이상한 것 같았고 처음부터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Kino가 眞珠(自由)를 얻은 후의 그의 希望을 나열하자 그들은,

“There it started. A foolish madness came over him so that he spoke foolish words.”(p. 34)

라고 Kino를 미친 사람 취급하려 들었다. 이렇게 되자 Kino의 決心도 차차 허물어져 갔고 이웃사람들이,

“And one man said that he would give it as a present to the Holy Father in Rome. Another said that he would buy Masses for the souls of his family for a thousand years. Another thought he might take the money and distribute it among the poor of La Paz.”(p. 56)

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르자,

“He was trapped as people were always trapped.”(p. 39)

라는 心境에 도달하게 되고 이 느낌을 옮겨받은 아내 Juana는 결국,

“‘This thing is evil,’ she cried harshly. ‘This pearl is like a sin! It will destroy us’, and her voice rose shrilly. ‘Throw it away, Kino. Let us break it between stones. Let us bury it and forget the place. Let us throw it back into the sea. It has brought evil. Kino, my husband. It will destroy us’”. (p. 50)

라고 외치게 된다. 그러나 Kino 로서는 “This is our one chance”(p. 50)라고 아직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自由를 守護하기 위하여 소위 밤의 악마(the evils of night) 속으로 도피하게 된다. 즉 그는,

“For his dream of the future was real and never to be destroyed, and he said, ‘I will go’”(p. 69).

와 같은 決意로 길을 떠나지만 결국,

“Each one must remain faithful to his post and must not go running about.”(p. 60)

라는 神父의 말과 같이 그의 ‘trapped’된 運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Kino 는

“He had lost one world and had not gained another.”(p. 6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Coyotito 만을 잃었을 뿐 그가 갈망하던 또 하나의 世界는 얻지 못하고 失意에 차 바닷가로 돌아와 드디어 그가 주었던 自由를 바다 속 깊이 던져넣게 된다.

Steinbeck 은 이 自由포기의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Kino’s hand shook a little, and he turned slowly to Juana and held the pearl out to her. She stood beside him, still holding her dead bundle over her shoulder. She looked at the pearl in his hand for a moment and then she looked into Kino’s eyes and said softly, ‘No, you.’

And Kino drew back his arm and flung the pearl with all his might. Kino and Juana watched it go, winking and glimmering under the setting sun. They saw the little splash in the distance, and they stood side by side watching the place for a long time.”(pp. 117—118)

4. 結 論

筆者는 제 2 장 첫머리에서 The pearl 이란 作品이 이 作家의 精神的 彷徨의 한 里程碑가 된다고 指摘했다. 그것은 Steinbeck 이 30年代에 길게 풍겼던 社會關心과 또 그것의 表現으로서 集團과 集團을 極限까지 對決시켜 얻으려던 人間問題의 解決이 挫折되자 그는 人間問題의 解

決은 아무리 農民과 地主, 資本家와 勞動者 集團을 對決시켜도 끝내 이루어질 수 없다는 決論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 原色的 社會意識에서 벗어나려는 道程에서 찾아든 곳이 이 社會의 極小單位인 Kino의 家庭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때의 Steinbeck의 눈에는 이미 美國의 社會나 農民들은 보이지 않았고 가장 작은 安息處(家庭)를 찾아 그곳에 安住해 보려 했다. 만일 人間을 社會的 動物이라고 規定하고 따라서 人間은 相互連帶 속에서 生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친다면 그는 이 最小單位의 家庭으로 後退하여 그곳에서 生의 意義를 찾으려 했다. 따라서 Steinbeck이 Kino에게 들려준 '노래'는 社會的 動物로서 가장 退步된 노래이며, 家庭이라는 좁은 社會에 凝縮되어 거기서 救援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社會로부터의 徹底的 逃避를 보여준 The Pastures of Heaven (1932)보다도 더 逃避의인 世界이며 거기서 벗어나 넓은 社會와 接點을 求하려 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두꺼운 껍질 속에 숨어들려 한 것은 단지 作品상의 技法의 한 試圖라고만 解釋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Steinbeck라는 人間을 念頭に 두고 그의 作品中에서 The Pearl을 생각할 경우 이 試圖는 技法上的 問題가 아니라 當時의 그의 彷徨하는 心境을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의 作品을 볼 때 作者 自身을 머리에 넣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Steinbeck은 文字를 驅使하여 技巧에 心血을 쏟는 한낱 技術者가 아니라, 思想家이며 求道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서 人間이란 또 人生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求道者的 側面을 除外시킨다면 그의 價値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East of Eden과 관련지어 The Pearl을 생각해 본다면, 作者는 훨씬 後退한 創造性이 없는 社會에서 새롭게 人間價値를 묻고 있다. Kino의 아내 Juana는 자기의 집이 제일 따뜻하고 安全하다고 부르짖지만 作家는 이 最小限의 社會에서 새삼스레 人間の 價値를 묻고 家庭外에 있는 社會와 自己의 사이에 새로운 接點을 發見하려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失敗와 挫折을 맛보게 된다. 그 첫째는 아무리 最小單位이라 하더라도 社會集團은 역시 社會集團이었기 때문에 이 對決에서 人間問題를 읽으려는 試圖는 30年代의 그의 발자취와 별로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의 手法이 그의 意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思想은 原色的 社會意識을 벗어나 倫理的 혹은 宗教的 次元에서 人間問題를 묻고 싶었지만 그의 文學的 手法은 미처 이것을 消化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을 다시 말한다면 Steinbeck이 이 作品中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란 自然의 法則에 뿌리를 박은 것이며 人間の 慾望은 自然의 法則을 敵으로 돌릴 때 비릇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自然의 法則은 生命이요, 生命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되며 善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 作品의 제3장에서 Kino의 모든 障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라이플' 銃이라고 설명하고 이 銃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滿足하고 있는 動物들에 대해서 人間을 優位로 이끌은 原動力이며 또한 그것이 人間の 才能을 表現한 한 가지 例라고 認

定하고 있다. 이러한 矛盾된 作者의 말은 人間의 優位性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즉 人間의 優位性은 否定할 수 없지만 그것은 自然의 法則에 따르는 것으로서 確立된 것이므로, 이 點에 대한 理解가 있으면 사람에게는 障害가 없어지고 人間의 才能은 끝없이 뿐어나갈 可能性을 지닌다. 그러나 이 點을 認識 못하고 人間의 才能을 自然의 法則에서 獨立된 것으로 생각하여 自然의 法則을 敵으로 돌릴 때 人間은 破滅에 直面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의 法則이란 生命 그 자체임을 생각할 때 眞珠를 둘러싼 Kino의 안밖의 慾望은 自然法則과는 全然 關係가 없는 生命과 遊離된 世界로 들어가고 만다. 「그는 地平線을 부쳤다.」(p. 32)라는 말은 人間에게 있어서 限界線인 地平線 즉 生命의 法則, 사람에게 따라서는 創造主 혹은 神이라 부를 수 있는 線을 逸脫했거나 잊어버린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人間이 優位性을 얻게 된 原理, 즉 生命의 法則을 忘却하고 人間自體의 獨立性만을 믿는 者는 그 過信 때문에 自然으로 끌어내려져야 한다. 일단 끌려내려와서 새삼스레 무엇이 人間을 優位에서게 했는가를 再認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Kino가 걸어온 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人間을 根源의으로 神과 對決시켜 人間의 存在意義와 倫理性을 읽으려 하지않고 自然法則 속에서 人間을 解決하려 한 곳에 이 作品의 失敗의 原因이 있다. 따라서 이 作品은 宗教的 次元에서 明確한 倫理性을 지니고 神과 對決하려했던 East of Eden의 境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그 次元으로 가는 道程의 한 里程標에 지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 剝奪하는 者와 剝奪當하는 者의 싸움은 그것이 人間의 自由問題나 혹은 宗教的 次元의 實存問題와 關係가 없을 때 作品의 手段이나 題材는 될지언정 作品의 主題는 될 수 없다. 즉 征服者인 불란서人, 스페인人, 美國人의 擄取나 또는 그들로부터 400年間 支配를 받아 貧困과 無智의 처지에 놓인 土人들의 激烈한 憤怒도 “家庭의 노래”를 곱게 읊을 수 있는 材料는 될 수 있지만 讀者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主要 參考 書籍

- 1) Peter Lie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swick: Rutgers Univ. press, 1958.
- 2) Warren French, John Setinbeck, New York; Twayne, 1961.
- 3) E. W. Tedlock, Jr., & C. V. Wicker, eds.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57.
- 4) F. W. Watt. Steinbeck, Oliver and Boyd. London, 1962.
- 5) Joseph Fontenrose, John Steinbeck, Barnes & Noble Inc: New York, 1963.
- 6) Harry T. Moor,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Folcroft press, Inc., 1968.
- 7) Lester G. Marks, Thematic Design in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Humanities Press, Inc. New York, 1968.

Summary

The study purports to give an account of 'what does John Steinbeck's the Pearl symbolize?' Though the story is solidly based on La paz and its environs, it is universal in its implications, and much of its impact depends on its double effect the pearl is not merely a source of wealth and selfish indulgence for one particular family but a symbol of the false hope of total salvation through material possessions. Moreover, the pearl represents a double standard and calls forth both the beauty and the beast in man's heart. But from the beginning, Kino is unable to keep this newly-won prize to himself. The venom of greed and envy permeates the whole community, until Kino's pearl enters "the dreams, the speculations, the scheme, the plans, the futures, the wishes, the needs, the lusts, the hungers, of everyone....."

But gradually the pearl's evil nature gains the ascendancy in Kino's affairs, though he steadfastly refuses to listen to his wife Juana's pleas to throw it back into the sea; and by the time he takes leave of the village, the pearl has become a fixation and Kino is no longer a free agent; he cannot surrender it— "If I give it up I shall lose my Soul."

Thereafter, Kino does in fact lose his independence of action and becomes the pearl's instrument, despite the fact that he can no longer delude himself with visions of wealth and happiness.

By the close Kino has come to recognize the pearl as a symbol of evil; it is now a thing of ugliness, "like a malignant growth," and the song it transmits to his mind is distorted and insane. And it is only when the pearl once again has settled down among the fern-like plants of the undersea and disappeared forever from human sight, that this evil music fades away.

At one level, therefore, The Pearl tells a simple story of a Mexican-Indian pearl-diver and his wife and child; but, at a deeper level, it is a strange piece of work, full of curious symbolism, which at times reads like a Biblical parable.